

후회표현의 의사소통 기능 고찰

강현화(연세대학교)

Kang Hyoun-Hwa. 2008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ttern expressions and Regret expre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database which analyses a correlation between 'regret' communicative functions and grammatical patterns for effective teaching. Based upon the case study about the ending forms including '-ulgeol', I conduct a corpus analysis to investigate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ir expressions. Using a spoken corpus, I especially attempt to examine a correlation between pattern expressions appeared in daily conversation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Based upon spoken data analysis, the given pattern expressions seem to have a primary basic meaning and are connected with a varie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emphasize or euphemize a speaker's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rammar instruction can not be effectively carried out simply by teaching individual pattern expressions and artificial conversation depending on basic meaning.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meaning functions appeared in real language performance are identified. Second, this study distinguishes varied patterns of the given expressions from related patterns and suggests a list of pattern expressions that are combined with other grammatical forms and subsequently have different meaning functions. Therefore, a differential instruction of them is desired.

핵심어: 표현문형(pattern expressions), 구어 코퍼스(spoken corpus), 의사소통 의미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 화행(speech act), 문법 교수(grammar instruction)

1. 연구 목적

어휘와 문법이 연계된 어휘적 접근(Lexical Approach)에 이어 언어교육

에 있어 문법과 화행이 연계되고 있다. Graham Lock(1996)에서는 문법을 규칙의 집합으로 보고 문법 구조의 형태에 관심을 두었던 전통적인 형식(formal) 문법을 비판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법은 분석을 위한 추상적 문법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화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문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 문법에서의 문법이란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체계인 언어의 구조를 분석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문법 구조의 형태가 아닌 기능과 기능의 구성 성분, 맥락 속에서의 기능적 의미를 주된 관심사로 한다. 기능 문법은 문법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의미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습자와 교사에게 그 언어에 대해 유용한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문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이러한 기능문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¹⁾

본고는 표현문형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사례 연구로 후회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즉, 특정 표현문형은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는지와 특정 의사소통 기능은 어떻게 다양한 표현문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표현문형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구어 코퍼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실증적 자료를 통한 다(多)대 다(多)로 대응되는 표현문형과 의사소통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은, 한 문형과 한 의미로 국한했던 문법교수 방식을 넘어서, 실제 언어 수행에서의 구어 중심,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른 문형 교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2. 선행 연구

2.1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문법 교수에 대한 연구

1) Graham Lock(1996)의 기능 문법에서의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과 본고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본고의 '의미 기능'은 2절에서 밝혔다.

그간의 연구에서 문법항목의 교수가 형태, 의미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기능적 정보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종은(1998), 김재욱(2003), 박영순(2001), 이효정(2003), 한송화(2006), 강현화(2007) 등이 주된 논의들이다. 박영순(2001)은 종래의 서법 분류를 비판하고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 청자에게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문장을 기능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효정(2003)은 한국어교육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많은 덩어리 문형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을 정리한 바 있다. 한송화(2006)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의 문법 범주를 기능 문법에 근거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김서형(2007)에서는 희망표현의 목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구어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이들 형태의 통사적, 화용적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강현화(2007) 역시 지시적 화행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문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본 논문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 특히 구어 코퍼스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본고가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능이란 ‘방향 묻기, 길 찾기 등’의 상황적 의사소통 기능이 아니라, ‘명령, 거절, 의지’ 등과 같이 화자의 발화 의도와 연계된 화행(speech act)로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화행의 기능은 실제 언어수행에서는 특정한 문형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본다.

2.2 ‘-을걸’에 대한 연구

먼저 연구의 사례가 되는 ‘-을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영근(1989)에서는‘(으)르걸’을 확실치 못한 일을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는 ‘-(으)르걸’은 화자의 불확실한 추측을 청자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으)르것을’에서 변화된 것으로 추측의 구어체적인 표현이라 했다. 박재

연(2004)에서는 ‘-(으)르걸’을 다의성을 가지는 어미로 판단하였다. 인식양태로서의 ‘-(으)르걸’의 의미는 정보의 확실성, 즉 개연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고 행위양태로서의 ‘-(으)르걸’의 의미는 재귀적 조건을 부과하는 소망의 일종으로 후회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종은(2005)은 화자가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때 ‘-었어야 했다’와 ‘-(으)르걸 그랬다’를 사용하는데, 화자는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스러움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경행(2005)에서는 ‘-을걸’의 종결 어미화 과정에 대해 논하며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으로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우선 ‘-을걸’을 ‘추측’과 ‘후회’로 구분하여 별개의 형태로 설명하는 경우와 이들을 다의성을 가지는 어미로 파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둘째 ‘불확실한 추정’으로 보는 경우와 ‘확실한 정보’로 보는 경우로 상반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구어 코퍼스 분석을 통해 쟁점이 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3.1 연구 대상

현재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은 ‘시제, 부정, 존대 등’과 같이 문법범주에 따른 문법 지식만의 교육이 아니라, ‘-는데도 불구하고, -기 때문에, -는 것 같다, -르 리가 없다, -르 수 있다’ 등과 같이 화자의 의도와 연계된 표현문형 형태도 다루어 왔는데, 이는 내국인 대상의 문법 교수와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표현문형 중심의 문법 교수는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화의 이해와 산출에 큰 도움을 주어 왔다. 하지만 실제 교수의 내용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교재를 살펴보면 문형과 연습 문제만을 제시했

을 뿐, 해당 문형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진 바가 많았고, 실제 교사가 교실에서 개별 문형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우선, 개별 문형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제약형과 간단한 의미만을 제시한 뒤, 문형 연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습은 고립된 구나 문장 형태의 연습으로 이루어져 담화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의 실제 모습과 연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한 개별 문형이 가지는 다양한 담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제시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인 문법 교수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 문형의 의미, 형태-통사, 담화상의 특성이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간의 연구에서 개별 문형에 대한 통사적·의미적 기능 외에 화행 기능에 대한 소규모 연구들도 진행되어 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개별 화행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화행의 틀 속에서 총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화행 기능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또한 개별 화행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의 연구에서 개별 화행과 문형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첫째는 ‘-을걸’ 문형에 대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구어코퍼스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후회표현’과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문형 중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 -르 텐데, -고 말다, -다니’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각 문형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방향의 연구를 통해 한 문형이 보여주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과 한 의사소통 기능을 구현하는 다양한 표현문형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3.2 연구 방법

그간의 연구에서 특정 문형이 어떠한 담화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주로 담화완성형 설문지(DCT)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방법이나 주관적 설계에 의한 설문조사법은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했으며, 설문조사법 역시 조사 대상의 수적 한계로 인해 신뢰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어 코퍼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말뭉치 연구도 규모가 적거나 균형적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²⁾ 하지만 언어사용의 실제 자료인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기존의 담화완성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담화설문 문항 작성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상보적인 연구로서 귀납적 실제 자료인 코퍼스를 바탕으로 하여 표현 문형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세종말뭉치 중 구어 말뭉치³⁾와 필자가 구축한 약 7,013,918 어절의 준구어 말뭉치이다.⁴⁾ 구어 말뭉치는 다양한 하위 부류로 나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류들은 세종말뭉치에 기대고 드러마나 영화 대본 자료만을 추가로 구성하였다.⁵⁾ 가능한 주제가 편중되지

-
- 2) 말뭉치의 예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관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말뭉치에 출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말뭉치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특정 기능이 두드러짐으로 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한 충분한 규모의 말뭉치의 확보와 말뭉치의 균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3) 세종 구어 말뭉치는 총 30만 어절로 대화(공적 37%-방송/비방송, 사적 32%-일상대화/전화대화)와 독백(공적 29%-방송/비방송, 사적 2%-동화 영화 드라마 경험담)로 구성되어 있다.
 - 4) 드라마 52편, 영화 56편이다. 실제 드라마는 52편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가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 등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물이기 때문에 총 52편의 드라마 1,228회분의 대본이다. 현대 구어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사극이나 시대물은 배제하였다.
 - 5) 준구어 말뭉치는 다음의 효용성이 있다. 첫째, 일상적 대화 말뭉치는 생략과 도치와 같은 구어적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연구 대상이 되는 문형을 찾아내는 데에 효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준구어 자료를 통해 대화의 전형적(typical)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대사의 작성에 있어 실제 대화의 형태로 기술하면서도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형적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대본의

않게 다양한 주제의 드라마를 선정했고, 등장인물도 세대별로 10대~60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였으며, 직업 및 지위를 고려하고자 했다. 시대로 80년대~현재까지 방영했던 드라마, 영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발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로 삼은 모든 준구어 자료에 대해 출연하는 인물의 관계 정보를 조사하였다. 구어 말뭉치는 대화별로 검색되므로, 등장인물의 태도에 의한 화청자 간의 관계 분석은 해당 발화에서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화청자의 남녀 성별, 나이, 화청자 간의 상호관계(공적, 사적, 친근도), 방언적 특성(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을걸’의 의사소통 기능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을걸’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정리해 보고, 여기서 제시된 의미적 특성이 구어코퍼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4.1 문형 사전에 기술된 분석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을걸’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진 어미로 보았다.

■ -을걸 「어미」 : 「ㄹ」(「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

특성상 대사에 앞서 괄호나 지문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발화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본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상황이나 장면이 반영되어 있어 대인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기능을 살피는 데에 적절하다. 하지만 구어 대화 말뭉치에 비해 실제성의 정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작가의 개인 방언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말뭉치의 일반 구어 말뭉치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처럼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걸./아마 지금쯤 동생은 제 방에서 빵을 먹을걸.』

§ 「ㄹ」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 대하여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을걸./하라고 할 때 그 일을 맡을걸./그들이 가까운 데에 살았으면 좀 더 잘해 줬을걸.』

다음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출간된 문법사전에 역시 대부분은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함께 보이고 있다.

	이희자·이종희 (2001)	서상규 외 (2004)	백봉자(2005)	국립국어원(2005)
-을걸	추측/후회	추측/후회	후회,아쉬움/추정	추측/ 후회, 아쉬움

4.2 ‘-을걸’의 형태·통사적 특성

선행 연구와 4.1절의 문법사전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을걸’과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을 하나의 종결어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측과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은 의미상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여 설명함이 바람직하다.

첫째, 추측과 후회의 ‘-을걸’은 선행용언과의 결합이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 그 분포의 차이가 있다. 추측의 ‘-을걸’은 ‘는걸’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는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는걸 [어미]

- 1)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감탄**함을 나타낸다.
- 2)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설명하듯 말하거나 그 근거를 댈 때 나타낸다. 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덧붙이거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가볍게 **반박**할 때 쓴다.

‘-는걸’은 선행용언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며, 선어말어미와의 결합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을걸’을 ‘-을걸¹’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기능 \ 용언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현재	감탄, 반박	-는걸	-은걸/-ㄴ걸	-인걸/ㄴ걸
	추정	-을걸/-ㄹ걸		-일걸/-ㄹ걸
과거	감탄, 반박	-았는걸, -던걸, -았던걸		-이었던걸/-이던걸
	추정	-았을걸		-일걸/-ㄹ걸
미래	반박	-을걸/-ㄹ걸		—
	추정	-겠는걸		-이겠는걸

이에 반해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²’은 선행 용언에 ‘동사’만을 허용하며 모든 시제에서 주로 ‘-을걸’의 형태로만 나타나며, ‘-았더라면 -았을걸’의 공기 표현에만 후회가 나타난다.⁶⁾

둘째, ‘-을걸²’는 존대형 ‘-을걸요’가 나타날 수 없다. 이는 후회의 ‘-을걸²’가 주로 1인칭에 한정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 (1) ㄱ. 내일은 날씨가 추울걸요?
- 나. 어제 숙제를 할걸/*할걸요

셋째, (예2)에서 보듯이 부정의 형태 역시 ‘-을걸¹’이 ‘-지 않을걸’임에 반해, ‘-을걸²’는 ‘-지 말걸’로 나타난다. 넷째, (예3)과 같이 추정의 ‘-을걸¹’은 대부분 ‘-을 거야’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⁷⁾ 후회의 ‘-을걸²’는 ‘-을 것

6) 이에 반해 추정의 ‘-을걸’은 ‘-았을걸’, ‘-겠는걸’이 나타나기도 한다.
 7) 이해영(1996)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ㄱ, 나)을 들어 ‘-을걸’과 ‘-을 거야’의 차이를 구분한다. 하지만 ㄷ, ㄹ의 예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어색한 이유는 ‘-을걸’이 친근한 사이에서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ㄱ.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 이제 비가 올 거야
- 나.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 *이제 비가 올걸
- ㄷ.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 이제 곧 비가 올걸, 고생 좀 해 봐라
- ㄹ. 폭염주의보래, 내일은 엄청 더울 거야/ 내일은 엄청 더울걸?

부분 경험이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확신한 추정에 해당한다.8) 이때 억양은 다소 올라간다.

- (5) ㄱ. 어제 경기에서 캐나다 팀이 이겼을걸?
- ㄴ. 캐나다 팀이 미국 팀보다 더 전력이 셀걸?
- ㄷ. 내일 경기에서 한국 팀이 이길걸?
- ㄹ. 그 친구 키가 너 만할걸?

둘째, 주로 실제로 경험하거나 본 것에 근거하여 이를 감탄할 때 쓰인다. 이때 1인칭 주어는 제약된다.

- (6) ㄱ. 어제 캐나다 팀 잘 싸우던걸 ! /한국 팀 잘 했는걸 !
- ㄴ. 야, 한국 팀 정말 잘 하는걸 !

하지만 이러한 기본의미들은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문맥상에서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변의의미를 가지기도 한다.9)

첫째, 추측에 기반한 ‘-을걸’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완곡, 공손’의 ‘부담 완화’의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 주로 친근한 사이에서 사용되며 말줄임표를 통해 잠시 휴지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필요, 천만에요, 아니요’ 등과 함께 쓰인다.

- (7) # 씬 3 식당안 (밤)
- 독고진: (들어오다 회장 발견하고 다급히 와 선다)
- 독고전무: 야, 이제 오네요. (딸에게)회장님을 이렇게 기다리시게 해서 야 어디...
- 독고진: (공손히 인사)죄송합니다 회장님.

8) 본고에서 ‘추측’ 대신 ‘추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가 특별한 근거 여부와 관계 없이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데에 쓰인다면 본고의 ‘-을걸’은 ‘화자가 객관적 근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예상하는 것’에 주로 쓰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추정’이라고 표현하였다.

9) 변의의미란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하되 특정한 화맥에서 특별히 가지게 되는 의미를 말한다. 개별 단어의 기본의미와 변의의미와도 유사한 개념이다.

회장: 하하하하.. 아니에요. 내가 도리어 늦었는걸...앉아요. 앉읍시다 우리.

(8)# 회장: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미인이예요 독고 차장?

독고진: (새초롬히)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훈을 힐금 본다)

회장: (훈 향해)수고 했어.

훈: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9)#달자: 아내 노릇하라, 엄마 노릇하라, 며느리 노릇하라, 게다가 회사에선 실장님 노릇에 내 연애상담사까지... (보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다 해낼 수가 있어?

고순애: 나만 하는거니? 대한민국 모든 주부가 다 하는 일인걸.

달자: 나이 어릴텐 몰랐어.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건지.

둘째, 객관적 근거에 대한 추측은 상황에 따라 강한 자기주장이나 확신을 표시하기도 한다. ‘분명, 반드시’등과 함께 쓰인다. 때로 수사문의 문미의 꼴로 나타나기도 하며 의문형 추고의 의미도 가진다. ‘-해야 할걸?’이나 ‘-을걸세’의 꼴로도 사용된다.

(10)#수리: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진심어린)

준휘: (웃고)짜리면 거기 공장에 나두 좀 너 줘요.

수리: 푸후후후... 그래요 그럼. (문득 심각해져서)근데 우리 가게 서 받는 돈으론 그쪽 사는 집 방세 내기두 빠듯할걸요?

준휘: (먹으며)어떡해든 살아지겠조 뭐.

(11)#삼순: 아뇨...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자는 제 끼고 어차피 제가 다 먹어야 하는 거니까요. 언제 어느 걸 먹느냐, 그 차이뿐인걸요.

진현: ! -

(12)#삼순: (놀라서 손사레친다) 아네요, 아줌마! 애인 아네요! -

아줌마: (진현 보며) 애인 아냐? -

진현: (능청) 아뇨, 애인 맞아요. 아간 입도 분명 맞췄는걸요.

아줌마: (삼순을 흘긴다) 까불긴,

(13)#종말: 그래 뭔지 몰라도 이제 강성자 같다.

성자: 귀남오빠 알아줘야 할걸? 난 귀남오빠 생명의 은인이야.

종말: 와 거창하다, 생명의 은인?

셋째, 추측, 감탄의 기본의미는 문맥에 따라 ‘비아냥’이나 ‘편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 어디, 꽤나’등의 부사와 잘 어울린다.

(14)#장번호: 이번주 토요일에 내 생일 파티가 있는데, 모처럼 자네도 같이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태봉: (보다가 그저 짐짓 미소로 대답을 대신한다)

신세도: 오, 대단하겠는걸? 저 정도 인사의 생일파티라면 완전 상류사회사람들로 버글 버글할텐데, 안그러냐?

달자: 상류사회...?

(15)#성자: 엄마, 그전에도 누구랑 그렇게 귀어뜯고 싸운 적 있어요?

성자모: 없어, 참이야. 좀 열이 나아 말이지.

성자: 엄마가 사과해야 될 걸요? 엄마 나이가 한참 아래잖아요.

성자모: 싫다. 사과란 게 잘못된 사람이 하는 게지 나아갓구 한다던?

(16)#삼순: 넌 외간남자한테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니.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봐.

채리: 흥, 그래두 희진언니한테 안 될걸? 조족지혈이라고 알까몰라?

(17)#성자: 뭐하러 오세요. 그러게. 그냥 계심 내가 내려가면 될 걸.

성자모: 너 계속 이렇게 엄마 쉽게 할래?

성자: 알았어요. 가요.

다음으로 ‘-을걸²’의 기본의미는 ‘후회’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어는 1인칭으로 제한되며 혼잣말의 형태나 말줄임의 꼴로 나타난다.

(18)#경: (맹하게) 나, 그런 거 없어요.(뒤돌아서 궁시렁) 제주도나 갈걸. 아, 드러.

복수: (궁시렁) 미래가 더 똑똑한 거 같애. ...그냥, 미래랑 살 걸 그랬나?

(19)#달자: (잔뜩 긴장한채 보는 위로 E) 어떡해.. 싫은가봐...

신세도: (본다)

달자: 아...말하지 말 걸... (후회막급인데 바로 그 때)

신세도: (갑자기 쓱 다가와 달자의 볼에 가볍게 쪽! 뽀뽀해준다)

‘-을걸²’의 변의의미로는 첫째, 기본적으로는 후회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혼잣말이 아닌 청자를 대상으로 한 명시적 표현으로 잘못되거나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나 사과의 형태로 후회 표현¹⁰⁾을 사용하기도 한다. 행동의 결과가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미칠 때 사용한다.

(20)#후남: 사장님 점심 잡수시러 편집장님이랑 같이 나가셨어요.

준표: 전화를 하고 을 걸 그랬군.

후남: 앉으세요. 어쩌나 제가 지금 막 밥을 먹어서...

(21)#달자: 아, 예에... 친하에 재수없는 바람둥이 자식!

신세도: 그런데 내가 달자씨를 오해하고 있었나봐요, 좀 더 제대로 알때까지 시간을

가져볼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 버린게 아닐까 후회도 되고

달자: (순간 멍칫..! ? 돌아본다 E) 오잉? 후회?

둘째,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후회의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때는 2인칭(혹은 3인칭)이 쓰이는데, 이는 청자의 행동에 화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한 후회를 포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2) #종숙: 맨날 방안에서 조카나 봐야 하고..

종말: 너 괜히 내려왔어 그대로 있을 걸.

종숙: (다시 일거리 만지며) 누가 가랬니 오랬니?

(23) #미현: 양식 먹는데 포도주 한잔 갖다 놓는 거야 구색이지요. 진짜 포도주나 좀 담그

실걸 그랬어요.

이모: 이미, 답귀 났어.

이상으로 구어 코퍼스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 표현문형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표현하게 된다.

-을걸	-을걸 ¹	-을걸 ²
기본의미	추정, 감탄	후회



변의의미	부담완화, 자기주장, 비아냥	미안함, 아쉬움
------	-----------------	----------

10) 후회표현에 대한 개념 정리는 5장에서 하기로 한다.

또한 2절에서 제기한 선행 연구들 간의 견해 차이는 구어 코퍼스 분석 결과 ‘-을걸’은 크게 ‘추측’과 ‘후회’의 의미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을걸’의 의미 역시 ‘불확실한 추측’이라기보다는 강한 ‘자기주장’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후회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본 절에서는 4절과는 반대로 ‘후회’라는 의사소통 기능이 어떤 다양한 표현문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후회 표현은 하거나 하지 못한 지난 일에 대한 화자의 뉘우침이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사 표현으로 ‘아쉬움, 안타까움’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을 변별적으로 세분화한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도 있으나 본 절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후회표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기로 한다.

	세부 의미	대상	강도	시간
후회표현	후회	화자자신(행동)	심함	과거
	아쉬움	자신, 타인(행동)/사건	약함	제약 없음
	안타까움	타인(행동)/사건	약함	제약 없음

우선 ‘-을걸’을 비롯한 몇몇 후회 표현들의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문법 항목 중 해당 문형에 대한 설명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후회나 아쉬움, 안타까움(믿을 수 없음)등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희자·이종희 (2001)	서상규 외(2004)	백봉자(2005)	국립국어원 (2005)
-을걸	추측/후회	추측/후회	후회, 아쉬움/추정	추측 / 후회, 아쉬움
-을 텐데	추측	추측/추측의반대	종결형 없음	추측
-고 말다	의외, 유감	의지/아쉬움	끝남, 완료	안타까움/의지
-나 싶다 ¹⁾	그렇게 생각됨	생각이 들다	없음	추측/회의, 후회
-다니	(혼잣말) 놀람, 감탄, 분개	믿을수없음/강한 부정/불만	종결형 없음	놀람, 믿을수없음

한편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표현 문형이 후회 관련 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교재마다 문형 제시에 다양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행용언 결합정보나 문장부호 제시, 존대형 표시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걸(요)	V,A-(으)르걸	K_G_IE_11_L05	5과	종 결 형 독립문형 '을걸' 과 연 관 된 표현
		K_I_GA_11_L05	6과	
		K_P_KE_11_L03	23과	
	V-(으)르 걸요	K_U_YS_11_L03	25과	
		K_I_GA_11_L04	7과	
		K_U_KH_12_L05	2과 듣기	
V,A-(으)르/는걸요	K_U_KH_12_L05	2과 듣기		
	K_U_SM_11_L05	5-2과 문법연습		
V,A-(으)르걸요?	K_U_KH_12_L05	2과 듣기		
	K_U_HUFS_11_02	10과 GRAMMAR		
N-은/는 V,A-(으)르걸요	K_U_HUFS_11_02	10과 GRAMMAR		
	K_P_SISA_11_L02	8-5과 문법		
-는 걸(요)	V-(으)르 걸 그랬어요	K_U_HUFS_11_02	9과 GRAMMAR NOTE	
		K_U_HUFS_11_02	9과 GRAMMAR NOTE	
	V,A-(으)르/는/(으)르 줄 알았더라면 V-(으)르 걸 그랬어요	K_G_IE_11_L05	15과 문법 및 표현	
-았더라면 -을 것이다	V,A-았더라면/었더라면 V,A-았을/었을 겁니다	K_U_EH_12_L03	12과 준비	
		K_U_EH_12_L03	12과 준비	
-을 텐데 (요)	V,A-(으)르 텐데 V,A-았을/었을/였을 텐데 V,A-았/었더라면 V,A-았을 텐데/었을텐데 V,A-(으)르텐데(요)	K_G_IE_11_L02	9과 문법 및 표현	
		K_G_IE_11_L03	12과 문법 및 표현	
		K_P_SISA_11_L02	8-5과 문법	
		K_U_KR_11_L03	2과	
-다니	V,A-다니 V,A-다니 V,A-다니	K_G_IE_11_L05	5과	
		K_I_GA_11_L04	1과	
		K_I_GA_11_L05	2과	
-려고 하다	V-(으)려고 했다	K_U_EH_12_L01	15과 준비함시다 Activities	
-고 말다	V-고 말다	K_G_IE_11_L05	5과 등 11개 교재	
				기타

- 11) '공연히 갔나 싶다'와 같은 문장은 후회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구어 코퍼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공연히'가 없이 '-나 싶다'만으로는 후회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했다.
- 12) 제시된 자료는 이병규(2006)의 교재입력물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화자(학부생 50명)에게 조사하여 후회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문형만을 모은 것이다.

-기는 틀렸 다	V-기는 틀렸다	K_I_GA_11_L05	17과	후 회 의 의 미 를 가 지 는 용 언 과 관 계 된 표현들
	V,A-기는 틀렸다	K_U_SU_11_L03	20과 문법과 표현	
-ㄴ 것만 못 하다	V-지 않은 것만 못하다	K_G_IE_11_L05	2과	
-는지 모르 겠다	왜 이렇게 V,A-(으)ㄴ/는지 모르겠어요	K_P_SISA_11_L02	7-1과 문법	
	V,A-(으)ㄴ지/는지/였는지/ (으)르지 모르겠어요	K_I_GA_11_L04	3과	
	V,A-(으)르지 모르겠다	K_U_SU_11_L02	22과 문법	
	V,A-(으)르 줄 누가/어떻게 알았겠어요?	K_U_SU_11_L04	29과 문법과 표현	
-는 줄 몰랐 다	V,A-(으)ㄴ/는 줄 몰랐다	K_U_SU_11_L03	1과 문법과 표현	
	N-이/가 N-인 줄 몰랐다	K_U_SU_11_L03	1과 문법과 표현	
-아서 야단 이다/걱정이 다	V,A-아서/어서/여서 야단이 다	K_U_SU_11_L04	28과 문법과 표현	
	V,A-아서/어서/여서 걱정이 다	K_U_SU_11_L02	31과 문법	

위에 제시된 문형들의 구어 코퍼스 검색 결과¹³⁾를 앞 절에서 다룬 ‘-을
걸’을 제외한 각 개별 문형별로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왔더라면 -왔을
것인데...’, ‘-왔더라면 -왔을 텐데’, ‘-왔다니’, ‘-려고 했었는데...’, ‘-고 말
았다/말았어요/말았네요’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을 함으로써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내며, ‘-고 말았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낸다. 위의 문형 중 추측을 나타내는 ‘-을 것이다’나 ‘-을 텐
데’는 주로 ‘-왔더라면’의 선행절과 함께 쓰이며, 과거형으로 쓰인 경우에
만 후회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또한 말끝을 흐리며(혹은 말줄임표를 사용)
하향 억양으로 종결형으로 사용된다.

(24)#우혁: (술 취해서) 아버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하시죠? 형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사라
졌음 좋았을걸...그런 생각하시죠?
덕수: (침통하게 본다)....

13) 문형별 빈도는 보통 400-1000개 정도이나, 각 문형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므
로, 후회표현으로만 쓰인 의미빈도는 그 수치가 많지 않아 빈도를 따로 제시하
지는 않고 대표적인 용례만을 제시하였다.

우혁: 저도 그래요. 형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갔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성자모: 뭘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쓰는 거야?

후남: 네에. 소설이에요.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성자모: 우리 성자도 직장에 그냥 다녔더라면 좋았을텐데... (한숨)

(25) 후남부: 이봐 임자, 임자도 한잔 할라나?

후남모: 집안 망칠 일 있어요? 안팎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게?

중숙: (쟁반에 병따개와 컵을 올려다 준다)

후남부: 저렇게 멋대가리도 없는 여편네와 한평생을 살다니... 정말 수준 안 맞네.

#김교수: 박교수 자넨 과학을 하는 사람이야.

만수: 정확하게 공학돈데요.

박교수: 좌우지간.. 과학이든 공학이든..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규명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 자세다 이거지. 그런데. 어두운 밤에 귀신을 볼 기회가 어디 그리 흔한가.

그런 귀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다니...

만수: (버영해서 보는)

(26)#귀남: 내 돈이라니?

성자: 아,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귀남:... 미안하구나.

(27)#삼순: (마음의 소리)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해 어진 남자한테 전화질 하는 거라고, 연애박사 작은언니가 그랬다. 그것처럼 품위없고 추잡스러운 짓은 없다고. 비록 실수지만 난 오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삼순: 근데 이상하네? 분명 내 번호가 찍혔을 텐데 왜 안받았지? 받기 전에 끊었나?

다음으로는 명시적으로 후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어휘로 나타나는 표현문형들이 있다. ‘-기는 틀렸다, -ㄴ 것만 못해요’등이 그것인데 구어 코퍼스에는 후회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문맥에서만 후회의 의미가 들어날 뿐, 이 문형 자체에 후회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8)ㄱ. 이제 일이 되기는 다 틀렸어요.

ㄴ. 그 일은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해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어휘로 나타나는 표현문형으로 확신 없는 앞선 행동에 대해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았는지 모르겠다, -는 줄 몰랐다, -아서 야단이다/걱정이다’등의 관용적인 구로 나타나는데, 선행 용언의 주로 과거형으로 나타나며, 표현 문형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나타난다.

(29#민호: 비겁한 놈!

귀남:(주먹을 불끈쥐는데) 그래서?

민호: 내 오늘 어찌다 니네들이랑 합석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지.

같이 공이나 차든지 계집애들이나 따라 다녀라.

#귀남: 규태야 이해해 줄길 바라는데...가끔 가족이란 게 남보다 만나기 싫은 때가 있어.

나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30)#약속해 놓고 또...공연히 쑤셔놔서 걱정이야.

위의 표현 문형 중 명시적 어휘표현을 제외한 문형 간의 변별적 특징을 보인다면 아래와 같다. 모든 문형은 서술문에만 한정되며 주로 1인칭에만 사용되나 ‘타인이나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 2인칭이나 3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¹⁴⁾

	강도	청자 전체	혼잣말	문어	2,3인칭 허용
-을걸	강함(후회)	○	○/×	구어	2/3인칭
-을 텐데	약함(아쉬움)	○	○/×	구어	2/3인칭
-다니	약함(한탄)	-	○	구어	3인칭
-려고 했다	약함(아쉬움)	○	○/×	문/구어	-
-고 말았다	약함(아쉬움)	○	○/×	문/구어	3인칭

한편 후회 표현과 대립되는 다행 표현도 있는데, 이는 주로 ‘-을 뻔했다’의 꼴로 나타나며,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일어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에 대한 화자의 다행한 느낌을 나타낸다. 관련문형 교수에 활용할 수 있다.

14)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더라면 이번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와 같은 문장에서는 3인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청자 전체란 혼잣말이 아닌 청자에게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에고 미안하네요. 전화하고 올 걸’

-을 뵈하다	V,A-(으)르 뵈하다	K_G_IE_11_L05	14과
	V-(으)르 뵈하다	K_I_EK_12_L03	19과
	V-(으)르 뵈하다	K_I_GA_11_L04	28문법
	하마터면 V-(으)르 뵈하다	K_G_IE_11_L05	13과 문법 및 표현
	V-(으)르 뵈하다	K_U_KH_12_L04	8과 문법
	V-(으)르 뵈하다	K_U_SM_11_L03	1-1과 문법
	V,A-(으)르 뵈하다	K_U_HUFS_11_02	3과 GRAMMAR
	V-(으)르 뵈했다	K_U_EH_12_L03	11과 준비
V-(으)르 뵈하다	K_U_SU_11_L03	22과 문법과 표현	

6. 결론

본고는 ‘-을걸’을 사례로 삼아, 한 문형이 실제 언어수행에서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반대로 한 의사소통 의미 기능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가 문법 교수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문법교수에서 한 문형을 한 의미 기능으로만 가르쳤던 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한 문형은 사전적인 기본의미 외에 실제 대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문형 간의 변별적 연구에의 필요성 제기이다. 화청자 간의 관계, 화자의 전략, 담화 맥락을 비롯한 다양한 변별적 특징이 기술될 때 학습자의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그간 문어 연구에서 소홀이 다루어진 구어에서 나타나는 문형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이다. 그간 종결어미의 교수는 문법적 연구의 결과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종결어미가 화자의 발화의도(화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보다 화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제 담화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코퍼스에 나타난 의미 기능의 판정에의 주관성이나 코퍼스의 균형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향후 모국어화자의 담화분석 설문지로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문법 연구가 문어에 국한되고 통사적 특성에만 주안을 두었던 것은 이런 구어를 바탕으로 한 담화적 특성의 기술을 객관화하기 쉽지 않았던 데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언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라면 구어와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방법론적 연구는 꾸준히 발전되어 가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 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26쪽.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서울대출판부.
- 김서형(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48쪽.
-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 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63-180쪽.
-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 교육』 14-1, 173-210쪽
- 이중은(1998), “의사소통과 인지 중심의 한국어 문법 교수”,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0쪽.
- 이중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정(2003),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태표현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7-380쪽.
- 허경행(2005), 『한국어 복합중결어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raham Lock(1996), *Functional English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쪽,
- R, Carr(1980) “A Speech Act Dilemma” *Analysis*, Vol, 40, No, 3,p, 163-168, JSTOR Archive
- Kent Bach(1981) “Escaping the Speech Act Dilemma” *Analysis*, Vol, 41, No, 3,, p, 146-149, JSTOR Archive

[사전류]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백봉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 북스,
서상규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강현화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2123-5270

khang@yonsei.ac.kr

02-392-3114